

앙드레 브르통은 쓰고 있다.

‘삼라만상은 우리로 하여금 모순적으로 인식되던 삶과 죽음,

실재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,

과거와 미래,

소통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

더 이상 모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정신의 어떤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 
한다’라고.

나는 여기에 ‘선’과 ‘악’, 고통과 기쁨을 추가하고자 한다.

강렬한 문학과 신비 체험의 강렬함은 서로 이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.

중요한 것은 길이 아니다. 오직 이 지점만이 중요한 것이다.